

구례 남바람꽃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침을 열며

정연권

구례남바람꽃보전위원장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367-3번지. ‘남바람꽃’이 웅기종기 살아가는 서식지다. 다섯 마리 봉황이 지리산을 향해 날아간다는 오봉산(五鳳山) 기슭이다. 다섯 봉우리가 늘어선 모습이 마치 병풍같이 펼쳐져서 아늑하다. 옆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환상적인 벚꽃 터널이 전개돼 풍광조차 아름답다. 남바람꽃은 이곳을 비롯해 국내 4곳에만 자생한다. 귀한 야생화를 지키기 위해 ‘구례남바람꽃보전위원회’ 21명이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검푸른 새 잎이 올라오고 있다. 질서정연하게 퍼져 자리 잡고 있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작년에 이식한 포기도 자리를 잡았다. 지난 4년간 출입을 통제하고 짙레, 칩닝쿨 등 유해 개체를 제거한 덕분에 개체 수가 늘고 있다. 펜스 울타리를 쳐서 야생화의 순수함을 잊어버렸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펜스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 두 포기 굴취해 갔을지 모른다. 사진 촬영 시뻘히고 유해 개체들로 인해 서서히 멸종의 길을 걸었을 터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서식지 개방 시기 결정에 많은 고민을 했다. 지난해 3월 말 개방했는데 올해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 실종으로 꽃 필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피어나려는 꽃송이가 성냥개비처럼 앙증스럽고 스무송이 정도 꽃이 피었다. 4월 2일 서식지 출입문을 열었다. 남바람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일 년을 기다려 왔는데 작년보다 꽃이 늦다며 아쉬워하는 표정들이다.

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안달이다. 꽃이 언제 필 것인가 애당게 기다리며 조급해한다. 꽃은 때가 되고 조건이 충족돼야만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데 지난해 잣대로 기다리기 때문이다. 꽃이 피면 찾아와 문안 인사를 한다. 이게 꽃의 힘ियो 마력이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든다.

나비처럼 꽃을 찾아온 사람들은 진지하게 꽃송이를 보며 카메라에 담는다. 꽃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옆드리고 쫓고리는 등 다양한 자세로 순간 찰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담는다.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찍으려는 노력에 감탄한다. 한 시간 내외로 머물며 촬영하며 가면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남바람꽃을 잘 지켜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다. 특히 단톡방을 개설해 개방 일정과 개화 상황을 알려줘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동아랑초화랑’ 회원들은 남바람꽃을 괴롭히는 환삼덩굴, 쇠뜨기를 조심스럽게 뽑아줬다. 참으로 지극정성이다. “남바람꽃 지키는 데 보탬이 돼 기쁘네요.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다. “앞으로 50년은 해마다 만납니다.” 하자 “50년 후에는 백 살이 넘습니다.”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에 파안대소했다. 꽃 덕분에 웃음꽃이 피었다. 남바람꽃과 웃음꽃에 사람꽃이 만발하니 꽃전지요 꽃세상이 됐다. 말 없는 꽃이 사람들과 말하게 하고 웃게 했다. 대단한 마법사 아닌가.

몽환적인 봄바람이 불어오니 남바람꽃이 활짝 피었다. 천진난만한 구례 여인을 닮은 꽃을 보니 감개무량이다. 숲에서 청아한 새소리가 가슴으로 파고든다. 아침 햇살에 투영된 꽃봉오리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핑크빛 꽃잎이 젖혀지니 하얀 속살이 보인다. 하늘을 향한

투영한 하얀빛이 햇살과 마주하며 인사한다. 말없이 따스한 빛으로 꽃송이를 감싼다. 꽃송이는 서서히 꽃잎을 열고 인사를 한다. 꽃송이가 바람결에 까르르 웃음 짓는다. 활짝 핀 꽃송이에 나비가 찾아왔다. 벚꽃에 있던 꿀벌도 잠시 내려왔다. 남바람꽃과 벚꽃잎이 어우러져 혼미함과 황홀함을 안겨줬다.

4월 2일부터 시작된 개방은 4월 13일 마무리했다. 12일간 ‘구례남바람꽃보전위원회’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서식지를 밟지 않도록 안내하며 갑갑과 음료로 점심을 때웠다. 회비도 내고 칩닝쿨 등 유해 개체 제거 봉사도 했다.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일을 자청해서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렇다. 회원들은 구례의 야생화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다. 남바람꽃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감이 다. 펜스 설치에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잘했다고 한다. 구례군도 사유지 매입, 펜스와 데크, 감시카메라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리 인력과 급수차도 지원해줘 큰 힘이 됐다. 구례남바람꽃보전은 관민(官民)의 합작품이다. 구례군민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다.

개방 기간에 800여 명이 방문했다. ‘남바람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거의 사진작가와 애호가이다. 구례군의 진정한 생활인구로 존귀한 분들이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에는 물론 숙박하며 좋은 사진을 담기 위해 진력한다. 야생화 탐구자로 자연 생태 예술가다. 화엄사 흥매화, 수선화, 벚꽃 등을 같이 담아간다. 돌아가서 본인의 SNS에 올려 대한민국민에게 전파한다. 랜선으로 꽃이 다시 피어난다.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꽃이 됐다. 구례 남바람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름다운 봄날이다.

社說

조선대 ‘총괄 총장제’ 창학 100년 동력 되길

‘웰에이징’ 최고 대학 도약해야

조선대와 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가 ‘총괄 총장제’ 협약식을 토대로 대학 통합 추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분산돼 있는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 등을 하나의 중심 체계로 통합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해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이번 통합 추진이 개교 78주년을 맞는 조선대의 창학 100년을 향한 재도약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1946년 7만 2000여 명에 이르는 설립동지회원의 뜻을 모아 설립된 조선대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대학으로 지역민의 자부심이 높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수도권 1극체제’가 강화되면서 여느 지방대학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도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고 중도이탈 학생이 끊이지 않는 것도 조선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2년 연

속 탈락하면서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대의 통합을 통한 혁신안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고교 졸업생 모두가 대학에 간다 해도 정원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대학의 통합은 대학을 살리고 지역도 살아가는 중요한 계기다. 글로벌대학30사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점도 중요하다. 조선대의 글로벌대학 비전인 웰에이징 아시아 대학 핵심 실행 과제인 웰에이징 3대 특성화 교육과 빅데이터 기반 테스트베드 지·산·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은 ‘K-대학을 향한 대담한 혁신’이라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의 가치와 잘 어울린다.

대학 통합은 글로벌대학30 선정 여부를 떠나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웰에이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해야 한다. 올해로 78주년을 맞는 조선대가 웰에이징 분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안전한 수색 함께 침몰 원인도 규명해야

서경호서 실종자 1명 수습

원인불명의 사고로 침몰한 제22서경호 선체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침몰 67일 만이다. 여수해양경찰은 16일 낮 12시 12분께 여수시 거문도 동쪽 20해리(약 37km) 해저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과 전남도는 이날 곧바로 인양 작업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앞바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침몰했다. 승선자 14명 중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숨졌고, 외국인 선원 4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구조됐다. 현재까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 등 5명이 실종 상태다.

전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전문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기상 상황에 따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8인 4조 2교대 체제로 진행된다. 잠수사들은 수심 미터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조타실과 기관실 등을

중심으로 최소 5회 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색은 목숨을 건 작업이다. 고압 환경, 낮은 가시성, 거센 해류 등으로 인해 심해잠수는 극도의 위험을 동반한다. 실제로 수색 중인 잠수사들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최근 잇따른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수색은 여러 차례 지연되기도 했다. 수중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도를 요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은 기다림 속에서 전해진 이번 실종자 발견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4명의 실종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함께 안긴다.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침몰 원인 규명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해양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이 있다. 이젠 바다에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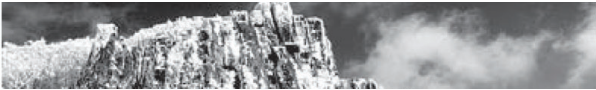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열자(列子)’, 천서편의 고사, 기인 지우(杞人之憂·기나라 사람의 걱정)에서 나온 말이다. 어떤 중국 기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을까 천전궁궁해 잠도 못자고 음식도 먹지 못했다. 이를 보다 못한 지인이 하늘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 해와 달, 별이 떨어지지 않고, 땅 역시 기운이 무쳐 이뤄진 것이니 꺼지지 않는다고 충고한 데서 유래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등을 표현할 때 쓰는 천붕지괴(天崩地壞)(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는 말도 기우에서 나왔다. 그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강조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하지만 이제는 쓸데없는 걱정이 ‘기우’가 아닌 시대가 됐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에선 이를 연속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11일에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도로가 꺼지고, 강동구 명일동에선 지름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땅 밑은 안전한가?

땅 밑은 도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지상 가용토지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일수록 그렇다. 도시팽창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하공간을 넓혀야 한다. 지하철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등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공간이다. 도시를 유지하는 기반시설들도 지하에 있다.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그리고 방재시설인 지하 저류조나 빗물배수터널 등이 도시를 겹겹이 떠받치고 있다.

그런 땅 밑에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블랙홀처럼 갑자기 꺼져 지상의 물체를 집어 삼키고 있다. 존재조차 잊고 사는 땅 밑의 불안감, ‘땅꺼짐 포비아’가 확산되고있다. 노후관 누수, 지하 건설로 인한 지하수의 다량 유출, 지반침하 현상의 가속화. 땅 아래의 안전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경고다. 땅 위엔 매년 폭우와 폭설이 쏟아져 도심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록적인 양이다. 었그제는 봄과 겨울이 뒤섞인듯, 4월 벚꽃 위에 눈이 쌓였다.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일상 속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게 ‘기우’였으면….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